경전 읽는 시간 일주일 평균 19분

한미준 · 한국갤럽 공동 조사결과

최근 6년간 불교 인구는 다른 종교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포교 및 신행활동은 오히려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 · 이하 한미준)'이 1월 25일 발간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두란노)〉에서 밝혀졌다.

한미준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6대 도시 만18세 이상 개신교 · 비개신교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조사'와 지난해 7~10월 전국(제주 제외)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6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현황 파악을 위한 옴니버스 조사' 등을 종합 정리한 결과, '불교' 26.7%, '개신교' 21.6%, '가톨릭' 8.2%로, 한국 사회에서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 6년 전 비해 3.2% 증가

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불교는 대폭 증가(+3.2%)한데 비해 개신교는 0.9%, 가톨릭은 0.7%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불교는 20대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개종/믿음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이 밝힌 희망 종교도 '불교'가 35.6%로 가장 높았다. 비종교인의 희망 종교 또한 불교 36.6%, 개신교 35.0%, 가톨릭 24.4% 순이었다. 98년 조사와 비교에 보면 불교(-4.7%)와 가톨릭(-11.6%)으로의 개종/믿음 의향이 감소한 반면, 개신교(+11.8%)는 대폭 상승했다.

특히 개종/신앙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16.4%)가 남자(10.0%)보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4.7%), 가정주부(16.7%), 무직/기타(17.8%)에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27.3%)에서 높았다.

포교로 법회 참석시킨 경험 8.2%

하지만 지난 1년간 누군가에게 포교 · 전도해 종교 예식에 참석시킨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불교인은 8.2%로 개신교인(26.4%)과 가톨릭인(11.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98년에 비해 불교의 최근 1년간 포교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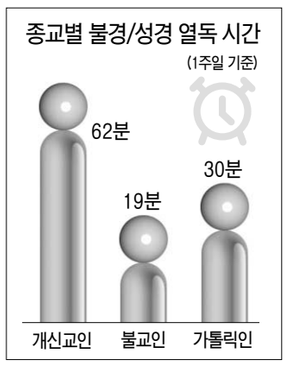
또 지난 1주일 법회/예배/미사 참석률은 불교인 17.5%로, 개신교(81.4%)와 가톨릭(59.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개신교인은 월평균 12만5600원, 가톨릭인은 5만9700원을 교회/성당에 기부하는데 비해, 불교인은 3만1400원을 법당에 기부했다.

불교인 83.9%는 평소 불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일주일 평균 불경 열독 시간도 개신교인 1시간 2분, 가톨릭인 30분에 비해, 불교인은 19분이었다. 98년에 비해서도 불경 열독 시간은 10분 감소됐다. 불교인 54.0%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1일 평균 기도 시간 또한 개신교인 27분, 가톨릭인 18분에 비해 불교인은 13분에 머물렀다.

불자 59.0% "나는 보수적"

불교인은 현재 다니는 사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가족이 다닌다(37.6%)' '거리가 가깝다(19.2%)' '설법이 좋아서(11.9%)'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9.9%)' '크고 유명하다(4.5%)' 순으로 꼽았다. 개신교 및 가톨릭과 비교하면 '거리' 요인은 매우 낮았으며, '종교 지도자' 요인은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크고 유명한' 법당을 찾는 경우는 개신교와 가톨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교 인구 증가 불구 불교 활동은 뒤쳐져
타종교 비해 불교 기복성향 강해
'하루중 기도시간 없다' 불자 54%



불교인 15.8%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개신교 7.1%, 가톨릭 4.5%)고 답해 기복적 요소가 타 종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 불교인 59.0%가 보수적이라고 답해, 개신교 52.5%, 가톨릭 5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57%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98년 조사(52.8%)에 비해 4.2% 증가했다. 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남자 18~24세 연령층(+11.7%)과, 여자 25~29세의 연령층(+8.7%)에서 10% 내외로 종교인구 비율이 증가해 젊은층에서 종교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불회장? 나는 곤란한데…"

새 집행부 구성 못해 고민중
'어렵고도 고된 감투' 회장직 꺼려
청와대 안 불자 적어 '인재난'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 영국 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장이 공석이 된 청와대불자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청불회는 1월 26일 서울 길상사에서 조윤제 회장의 송별회를 겸한 정기법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차기 회장감을 찾지 못해 집행부 구성도 2월 중순께로 미뤄졌다.

청불회는 지금까지 전임과 후임 회장이 나란히 이 · 취임식을 갖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박준영 前 공보수석과 김상남 前 복지노동수석이 대표적인 예다. 조윤제 前 경제보좌관도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청불회장직을 물러났다.

이는 갑작스런 인사발령 탓도 있지만, 청불회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시각이다. 청불회장이 청와대와 불교계를 연결하는 비공식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이 갖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불교계 사정에 밝은 청불회장이 불교관련 현안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청와대의 구조적인 문제도 청불회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불회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직책 외에 또 하나의 짐(?)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고, 청와대 내에서 '청불회장은 어렵고도 고된 감투'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잡아 회장직을 꺼리는 한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청와대 안에 불자 직원이 소수인 것도 인재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 청불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알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불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서 불교문화 진수 선보인다

세계적 출판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북지장사 지장도' 등의 빼어난 한국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인쇄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

올해 10월 19~23일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 고려대 명예교수)는 1월 26일 주빈국전시관 행사를 비롯해 25가지의 주요 문화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빈국을 맡은 이번 도서전에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전-영혼의 여정' '한국의 옛 인쇄문화' 등 불교문화를 이용한 문화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북지장사 지장도' 등을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전'은 불교회화에 나타난 종교적 이상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이 전시는 프랑크푸르트 시립 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특히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독일 쿠텐베르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 옛인쇄문화'는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인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시는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에서 열리며 전통한지 제작과정 소개와 관련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된다. 이밖에도 조직위원회는 '선(禪) 체험관' 등 우리나라 선 수행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성불자 교육 · 네트워크 강화

불교여성개발원, 2005 사업계획 발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여성불자들의 교육과 네크워크 형성을 통해 여성 지도자 발굴과 육성, 발전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

1월 25일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불교여성학 논문공모와 불교여성아카데미 설립, 행복한 가정 지원센터 등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불교여성학관련 논문공모는 1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하며 11월 1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공모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 최대 240만원의 연구비가 주어진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밖에도 10월에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해 종교 간의 정보교류와 불교여성학의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교여성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7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성불자 108명을 선정하는 한편, 이들이 지속적으로 여성불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불교의 여성관, 역사속의 여성불자, 승만경 등의 강좌와 불교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해 왔던 '혼인준비교실'은 올해부터 여성부의 지원으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올해부터는 혼인에서 노년까지 창가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인숙 원장은 "문화공연을 포함하는 후원행사 등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새만금 법정 공방 불가피

정부, 법원에 이의신청 방침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에만 2, 3년이 걸려 사업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환경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환경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가산'으로 모이는 원력들

불교학은 어려운 길이다. 공부도 어렵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몇 안 되는 연구소들조차도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은 예외다.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환경은 국내 어느 사설연구소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원장 지관 스님의 원력과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인재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경영능력,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최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에 이어 범어사 학장 무비스님 등이 불교대사림 편찬 사업을 위한 보시금을 잇따라 전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는 원로 석주 스님과 동춘스님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만간 〈불교대사림〉 제7권이 나온다. 본책이 13권(총15권)이 나올 예정이니 이제 반환점을 돈 셈이다. 19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간 지 14년, 첫 권이 나온 지 7년 만이고, 앞으로 7~8년은 더 걸려야 완간될 참으로 큰 불사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은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하는 일이다.

불교학으로 박사를 받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들 한다(본지 505호 1면 기사 참조). 제2, 제3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박익순 기자

금강불교대학 2549(2005)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과정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 과 목	교 육 일 시	지 원 자 격	특 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 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22기, 부산17기)	1 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유마경, 반야사상	매주 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2기) 부산(12기)	1 년	정토사상,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기신론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 과	모집정원	제 출 서 류		면 접 일 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 2005년 2월 24일 오후6시 *부산 : 2005년 2월 22일 오후6시	가. 기 간 : 2004년 11월 20일~ 2005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 2005년 3월 6일 오후 6시 *부산 : 2005년 2월 28일 오후 6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3매		서류전형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황룡사 032-873-0747
수원 용광사 031-255-4105 성남화성사 031-745-1482 안양 대안사 031-459-3666 평택법장사 031-655-9090
구리 금성사 031-563-9364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마산삼학사 055-244-6464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춘천 금강불교대학】 033-253-6542 【대구 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울산 금강불교대학】 052-277-7211
※춘천, 대구, 울산 금강불교대학의 수업일시는 각 대학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부산 금강불교대학 ◆춘천 금강불교대학 ◆대구 금강불교대학 ◆울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18(05), 19(06)번 버스 (LG연구소 •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417(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권탄준-금강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승일-국민대교수 은정희-서울교육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정성준-동국대교수
오지연-동국대교수 김은희-동국대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